
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	<h2>3.10(목) 10:00부터 보도가능</h2>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, 금융감독원 IT·금융정보보호단, 금융보안원, 금융결제원, 한국거래소, 코스콤, 주요은행(우리, 산업, 기업, KB, 하나, 신한, 씨티, SC, 농협, 수협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)			
책 임 자	김동환 과장(02-2156-9490) 김유미 선임국장(02-3145-7180) 김호술 부장(02-3495-9300) 박순만 부장(02-531-3600) 정근영 부장(02-3774-8880)	담 당 자	김영민 사무관(02-2156-9488) 고선영 사무관(02-2156-9932) 구원호 팀장(02-3145-7415) 박성수 팀장(02-3495-9310) 이송원 팀장(02-531-3610) 오윤석 팀장(02-3774-4352)	
배 포 일	16.3.10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3대

제 목 : 금융위,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태세 점검 - 「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」 개최 -

- 금융위원회는 3.10(목)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「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」를 개최
- 동 회의는 3.8일 개최된 “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”의 후속조치로
 -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

< 北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요 >

- (일시/장소) '16.3.10(목) 10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(주요 내용)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
- (참석자) 금융위원회(정은보 부위원장 주재), 금융감독원, 금융보안원, 금융결제원, 한국거래소, 코스콤, 16개 은행 보안 최고책임자

-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동향 및 금융권 전반의 대응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브리핑에 이어

- 금융보안원(금융 통합보안관제), 금융결제원(금융공동망), 한국거래소(증권전산망),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등이 각 기관별 사이버 테러 대응 현황을 보고하였음

- 금융위원회는 지난 1.6일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이후 선제적으로 금융권 위기경보를 격상*

* 금융전산위기 경보(5단계) : 정상 > 관심(1.8) > 주의(2.11) > 경계 > 심각

▶ 北 핵실험에 따라 2단계 ‘관심’ 경보 발령(1.8)

▶ 北 미사일발사 등에 따라 3단계 ‘주의’ 경보 발령(2.11)

-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관제요원 증원,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,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
- 금융당국은 16개 은행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긴급점검회의(1.8)를 개최하고, 금융결제원, 한국거래소 및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(1.13~2.23)을 실시한 바 있음

- 금융보안원은 “최근 보안업체 해킹 사고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,

-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사례는 없다”고 보고하였음

□ 정은보 부위원장은 “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사고 발생시 피해 대상*과 피해 규모**가 여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”고 강조하며,

* 은행의 비대면거래 비중 : 88.8%(‘15.6월 기준),
인터넷뱅킹 일평균 이용건수 : 7.7천만건, 이용금액 : 40조원(‘15.3분기 기준)

** ‘13.3월 제3차 핵실험 직후 북한 사이버테러(3.20)로 인한 직·간접적 피해액 8.6천억원, 이 중 금융권 피해액 8.5천억원 수준 추정(카이스트)

○ 보안업체 해킹 등 최근 발생한 신규 보안위협에 대비한 자체 점검에 만전을 다할 것과

○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침해위협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·대응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

□ 아울러, 현 상황의 엄중함과 금융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,

○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 이사 문책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힘.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